세화해변은 정말 맑고 고요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여기 이 해변과 똑닮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답니다. 이곳은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정말 즐거운 곳이에요. 바로 세화 해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북스테이, '마음스테이'랍니다. 마음스테이는 2017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미 세화리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숙박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숙소는 넓고 쾌적하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주변 시설도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시집 전문 책방 '시타북빠'와 연계하여 북스테이로서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1층 라운지는 낮에는 카페이자 책방으로, 밤에는 특별한 바(Bar)로 운영되고 있어요. 복잡한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정말 관심을 끌 만한 곳이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세화스러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머물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마음스테이는 제주 여행에서 온전한 쉼을 책임 지고 있어요. 고요한 여행지, 바닷가 근처의 낯선 곳에서 머물며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때로는 사는 곳으로부터 단절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머무는 것이 곧 여행이 되는 신비로운 여정을 만나게 될 거에요”

마음스테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13길 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50-13 2~4층

숙소의 특별한 점

• 휴양지 기반 감성 북스테이, 워케이션 숙소

• 시가있는 책방 시타북빠 운영

• 한달살이, 보름살이, 일주일살이를 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객실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리모트워크 환경으로 꿈꾸던 워케이션을 이루고 싶은 분

• 시집전문 시타북빠와 연계한 북스테이로 책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마음스테이는 숙박료 외 보증금과 전기세를 받고 있지 않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 숙박에 도전해 보세요.

• 주변에는 각종 편의 시설과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요. 도보 10분이내에 있는 공유오피스와 비자림, 용눈이오름 등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와 오름을 즐겨보세요.